2026년 2월 13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RA 김정현** jjnow@kiwoom.com

키움증권

AI 불확실성 국면, 선별 전략과 연준의 역할

다음 주 설 연휴 동안에는 대외 경제지표 발표나 주요 이벤트가 제한적이다. 다만 뉴욕증시에서 제기된 AI 회의론과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AI 투자 사이클과 성장 기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AI 로 수혜를 받을 산업과 대체될 산업에 대한 우려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는 AI 로 인한 산업 재편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AI 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수요 확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현 구간에서는 AI 전반에 대한 낙관보다는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도체, 전력, 에너지 등은 AI 투자 확대에 따라 비용 증가의 수혜를 받는 분야로 평가된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주식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흐름은 공급 병목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 전까지 AI 관련 산업 내 차별화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같은 국면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동성 여건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수요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물가 압력이 제한적이라면 연준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두고 당분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2/16~2/20)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2/17	유로존 2월 ZEW 서베이 예상	-	40.8
	美 2월 뉴욕 제조업지수	8.7	7.7
2/18	美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	37
	美 12월 내구재 주문 (MoM, 잠정치)	-1.9%	5.3%
	美 1월 산업생산 (MoM)	0.4%	0.4%
2/19	美 1월 FOMC 회의록 공개	-	3.50-3.75%
	美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6.4	12.6
2/20	美 4분기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2.8%	4.4%
	美 12월 PCE 물가지수 (MoM)	0.3%	0.2%
	美 12월 PCE 근원 물가지수 (MoM)	0.4%	0.2%
	美 12월 PCE 물가지수 (YoY)	-	2.8%
	美 12월 PCE 근원 물가지수 (YoY)	3.0%	2.8%
	美 12월 개인 소득 (MoM)	0.4%	0.3%
	美 12월 개인 소비지출 (MoM)	0.4%	0.5%
	日 1월 CPI (YoY)	1.6%	2.1%
	日 1월 근원 CPI (YoY)	2.0%	2.4%
	美 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21일)	-	57.3
연준위원 발언	보우먼 미연준이사(2/16), 바 미연준 부의장·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2/18), 애틀란타 연은 총재·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2/19), 시카고 연은 총재(2/20)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